

19世紀 前半期の 西洋人の 國語研究資料

高 永 根*

1.

言語研究의 動機는 한 言語가 外國語로 意識되거나 認識될 때 誘發되는 일이 흔하다. 國語가 外國語로 認識된 것은 新羅때부터 비롯되며 歷代에 걸쳐 中國과 日本에서 우리는 關聯史實과 資料를 많이 接할수 있다(高永根 1974). 國語가 西洋人에게 觀察・認識된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Hamel의 漂流記(1653~1677)에서 시작된다. 그 이후 國語는 西洋의 旅行家・航海家・地理研究家들의 꾸준한 關心의 對象이 되어 語彙蒐集이 行하여졌고 19世紀에 들어와서는 宣教師・外交官들에 의하여 文字・音韻・文法 등이 本格的으로 研究되기에 이르렀다¹⁾. 필자는 이러한 西洋人들의 國語研究의 動向을 體系의으로 史述하기 위한 豫備作業으로 우선 1820年에서 1882年 사이에 나온 그네들의 業績을 書誌・文獻의인 立場에서 整理해 보려고 한다. 이 時期의 國語研究의 書誌는 Underwood(1931), 小倉進平(1940, 1964)²⁾, Rosén(1970)³⁾을 통하여 大體 상황을 把握할 수 있다. 이런 既往의 業績을 발판으로 하고 필자의 직접적인 檢索結果를 더하여 西洋人の 國語研究史의 叙述에 貢獻할 수 있는 方向으로 作業을 行해 보려고 한다.

* 人文大 副教授(國語學專攻)

본고의 집필에 즈음하여 圖書貸出에 協力한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曹叔鉉 선생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 1) 初期 西洋人の 國語研究에 대한 大體의 叙述은 Rosny(1864), Griffis(1882), 小倉進平(1927, 1929) 참조.
- 2) 小倉進平(1964)는 1940年 版의 끝에 실린 河野六即교수에 의해 補注된 文獻目錄을 가리킨다. 이 補注에는 外國人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學者들(南北韓)의 業績도 나와 있다. 蘇聯서 나온 것은 露西亞文字로 表記되어 있다.
- 3) Rosén(1970)은 言語・文學를 비롯하여 考古歷史, 藝術, 書誌學, 學術誌, 哲學, 宗教, 施行記 등에 걸친 韓國學書誌인데 西歐語로 쓰인 業績만 대상으로 했다. 露語로 된 것은 로마자로 바뀌어 있다.

필자가 文獻整理의 範圍를 1820年에서 1882년까지 잡은 것은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 西洋人에 의한 國語文法研究의 史的 흐름을 더듬는 자리에서 필자는 第1期를 Güzlaff(1832)로부터 Ross(1882)까지 잡은 일이 있다(高永根 1978). 본고의 時期劃定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이 時期의 西洋人의 全般的인 研究傾向은 半島 바깥, 곧 中國, 滿洲, 日本 등의 在外에서 國語研究를 試圖했었다는 점이다. 鎖國政策에 묶이어 出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研究舞臺는 中國과 日本 등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앞서 든 Ross의 지술을 끝으로 하여 在外 西洋人의 國語研究는 終焉을 告하고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自由로 入國하여 研究한 西洋人의 業績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代表的인 例가 Scott(1887)와 Underwood(1890)이다. 1882년까지를 下限으로 정한 또 한 理由는 바로 이해 Griffis에 의해 그때까지의 西洋人의 國語研究史가 종합 서술된 데에 있다. 上限線을 1820년까지 끌어올린 것은, 이전의 Witsen (1705)⁴⁾, Pallas(1786), Broughton(1804), Hall(1818)⁵⁾의 研究는 語彙蒐集과 對譯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데 대해, Remusat(1820)부터는 韓國文字 및 音韻에 대한 구체적인 敘述을 접할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期間에 나온 자료들을 兩分하여 1850년까지를 考察의 대상으로 삼는다.

2.

Remusat(1820)은 書名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tartare 諸語, 곧 滿洲(Mandchou), 蒙古(Mongol), 위구르(Ouigour) 및 티벳(Tibetain)의 文法과 文學에 관한 研究書다. 2卷으로 되어 있다. 第Ⅰ卷에는 文法, 語源, 文學史에 관련된 tartare語의 一般事項이 7個章으로 나뉘어 敘述되어 있다. 第Ⅱ卷은 附錄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語彙, 引用書籍, 번역불인 原文(text) 등 第Ⅰ卷의 이해에 필요한 附帶說明이 베풀어져 있다고 한다(「序文」참조)⁶⁾ 第Ⅰ

4) Witsen의 國語語彙蒐集에 대하여는 Vos(1975) 참조.

5) Hall의 語彙蒐集에 대하여는 이용호(1977) 참조.

6) 필자는 第Ⅱ卷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출판여부도 確認을 하지 못하고 있다.

卷은 26cm×19.5cm의 皮革洋裝으로서 fj + 398面이다. M. Abel-Rémusat (1788~1852)가 國語에 대해 言及한 것은 한글의 구조와 起源이다. 이는 第Ⅲ章 “tartare族의 古代文字”(de quelques Écritures anciennement usitées chez les Tartares)(pp. 64~88)에 들어 있다. 본서의 한글 起源論에 대한 紹介와 이에 대한 論評은 Hulbert(1901)이 있다.

Klaproth(1823)은 1831년에 再版이 나오기는 했는데 亞細亞 言語誌다. 본서는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言語의 親近性에 따라 民族을 분류하고 同時에 이들 言語의 語彙比較를 試圖한 것이다. 본서에는 400에 가까운 獨譯을 붙인 國語語彙가 提示되어 있다. 이들 語彙의 出處는 「鷄林雜事」로 알려져 있다(小倉進平 1927)⁷⁾. Julius von Klaproth(1783~1835)는 이미 1810年 「亞細亞의 文學, 歷史 및 言語學에 대한 記錄」(Archiv für Asiatische Literatur, Geschichte und Sprachkunde)를 St. Petersburg에서 낸 바 있는데 그는 여기서 코오카사語(Kankasische Sprachen)와 流球語에 관한 연구를 試圖했었다.

Balbi(1826)에는 26개의 國語語彙가 나오는데 Klaproth(1823)을 참조한 것이다. 앞의 Klaproth는 1832年 「舊世界の 각종 文字의 起源에 대한 所見」이란 책자를 통해 한글 起源論을 展開하기도 했으며⁸⁾ 이해⁹⁾ 그는 또 林子平의 「三國通覽圖說」(1786)을 佛文으로 增補・意譯했다. Klaproth의 三國通覽圖說의 翻案은 우리나라(Corée), 流球(Lieou Khieou 또는 Riou Kiou) 및 Yeso의 歷史・風物을 설명한 책이다. 26.5cm×16.5cm 洋裝으로서 VI+286面이다. pp. 19~21에 諺文의 起源과 組織이 설명되어 있고 pp. 123~144에 佛譯붙은 450개의 語彙가 提示되어 있다. 이 部分은 原文에는 없었던 것인데 Klaproth가 특별히 넣었다고 한다(小倉進平 1964: 353). 본서의 國語語彙는 kou kin thou chou(「古今圖書」)에 실린 ki lin loui szu(「鷄林雜事」)에서 一次的으로 選定되었고 그 옆에 한글文獻, 日本의 大百科辭彙를 통해서 얻은 語彙와 Witsen과 Siebold(後述)에 의해 수집된 語彙들을 佛譯하고 있다.

7) 필자는 본서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小倉進平(1964: 70; 1929: 54-58) 참조.

8) 필자는 본서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小倉進平(1964: 160) 참조.

9) 內紙에는 M. DCCC. XXXII. (1832)로 나와 있고, 序文(「Préface」)을 쓴 것은 12 mai 1832(1832年 5月 12日)로 되어 있다.

책 後尾에 붙은 八道の 地名등의 羅馬字表記(pp. 269~280)도 國語研究의 資料로 看做할 수 있다.

이해 1832년에는 또 Siebold의 저 有名한 「日本の 記述에 관한 研究」(*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가 나왔다¹⁰⁾.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國語彙集을 整理・發表했다. 현재 필자는 1832年版은 물론 이후 發表한 語彙集類의 初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후의 세 차례에 걸친 重版만 가지고 있다. 重版들의 比較를 통하여 初版의 모습을 어렵듯이나마 짐작할 수 있고 語彙集들도 뽑아낼 수 있다.

Siebold의 國語에 관한 知識은 Nagasaki에서 全羅道 출신 허스첨(許士瞻)금치윤(金致潤)등의 船員, 漁夫, 商人과 接觸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這問의 사정은 Siebold(1852)의 *Nippon VII. Die Neben- und Schutzländer von Japan*(日本の 隣近國家 및 外廓地域)의 “日本海岸에서 難破한 몇 韓人들과의 交渉에서 얻은 韓國에 관한 報告”(Nachrichten über Koorai aus dem Um-gange mit einigen an die japanischen Küsten verschlagenen Kooraiern)의 한 條項인 “日本海岸에서 難破한 韓國商人들을 찾음”(Besuch bei einigen kooraischen Kaufleuten, welche an den Küsten von Japan Schiffbruch gelitten)에 구체적으로 보고되어 있다(SS. 6~9). 이 條項에 바로 이어 “言語와 文字”(Sprache und Schrift)項이 배풀어져 있다(SS. 10~17). 이곳에는 Hamel 이후의 西洋人の 國語觀察 및 語彙蒐集의 歷史가 概觀되어 있다. 이어 品詞中心의 文法概說, 文字 및 音韻에 관한 이야기가 배풀어져 있다. 끝에는 前述한 韓人과의 접촉에서 얻은 우리 詩歌一句와 許士瞻・金致潤으로부터 받은 글귀를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서 *kooraisches Liedchen*(韓國詩歌)이라 題하여 獨譯을 시도하고 脚註에서 그 羅馬字化와 日譯을 提示하고 있다. 한편 卷末의 附錄에는 “朝鮮歌”라 하여 한글로 된 原文이 紹介되어 있다(S. 6)¹¹⁾. 계속해서 許士瞻, 金致潤의 七言律詩와 五言絶句의 獨譯이 제시되고 있다. 脚註에는 각글자의 우리 訓과 音, 그리고 日本音을 붙이고 있

10) 1852年 Leyden版에 依하면 序文을 쓴 年代는 im Februar 1832(1832年 2月)로 되어 있다. 앞의 Klaproth 보다 2個月 먼저 나온 셈이다. 이로써 Klaproth가 Siebold를 참조했다는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前述).

11) 小倉進平(1964: 363~364)에 原歌의 羅馬字와 日・獨譯이 이미 公開된 바 있다.

고 끝줄에 각 글자의 뜻을 羅典語로 對譯하고 있다¹²⁾. 附錄에는 原詩와 한글의 訓·音을 단 原文을 붙이고 있다(SS. 7~8). 우리나라의 地理를 叙述한 곳에는 八道の 이름에 대한 羅馬字表記가 나온다. 이것도 國語자료로 간주 될 수 있다(SS. 20~21).

語彙目錄(Wörterverzeichnis)(SS. 29~44)은 저자가 韓國人과 직접 접촉하거나 「千字文」¹³⁾과 Klaproth의 語彙目錄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言語研究家와 旅行家를 念頭에 두고 만든 것이다. 登錄語彙數는 455個이다¹⁴⁾. 附錄의 原文(SS. 1~6)에 따라 漢字가 있던 자리에 獨語單語를 넣고 이어 우리의 訓·音과 日本의 訓·音を 두고 있다. 附錄의 끝에 “I 東國通鑑, II 朝鮮物語, III 三國通覽圖記, IV 朝鮮太平記, V 千字文, VI 倭語類解目錄”(S.6)이 列擧되어 있다. 이는 그가 本 語彙目錄 作成時에 참조한 書目으로 보는 편이 온당한 것이다(小倉進平 1929).

Siebold(1833)은 Siebold(1930)에 실린 것이다. 본서는 日本漢字의 音釋도 붙인 한글로 된 「千字文」을 羅典語序文을 붙여서 刊行한 것이다. 본서는 Siebold와 Ko Tsching Dschang(郭成章)의 協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Siebold(1838)은 제목과 출판지만 알고 있을 뿐 實物은 接하지 못하고 있다. Underwood(1931)에는 1838年 Batavorum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목은 羅典語로 나와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것은 Siebold(1852)에 실린 *Luihō, eine schinesische Wörtersammlung mit koraischer Übersetzung und Angabe des koraisch schinesischen Dialekt*(類合. 韓國語의 訓과 音を 붙인 漢字語彙集)로서 J. Hoffmann에 의해 批正되고 獨譯되었다는 但書가 붙어 있는 글이다. 1838年版을 1853년에 集成할 때 羅典語題目을 위와 같이 獨語로 바꾸었는지는 1838年版이 현재 없는 이상 무어라 速斷할 수 없다¹⁵⁾.

12) 小倉進平(1964: 364-5)에 獨譯, 우리의 訓·音 및 羅典語對譯과 漢文原詩가 이미 公開되었다.

13) 「千字文」은 1833년에 刊行되었고, 그 獨譯은 1840년에 되었는데 이곳에 千字文이 言及된 것은 1852年 重版할 때 상당한 손질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14) 小倉進平(1964: 71)에는 454個로 보고되어 있다. 이 숫자가 혹시 1832年版을 臺本으로 한데서 빚어졌는지 알 수 없다. 初版과 重版과의 嚴密한 對較가 要望된다.

15) 小倉進平도 類合翻譯本의 初版은 보지 못한 것 같다. 卷七云云하고 있기 때문이다(1964: 71). 그가 본 것은 1852年版도 아닌 1930年版일 가능성이 짙다. (後述)

우선 兩者가 같다고 간주하고 Siebold(1852)에 실린 것으로서 「類合」의 獨譯本을 檢討하기도 한다(SS. 61~86).

前述한 語彙目錄이 印刷에 넘어갔을때 Schilling-Candat男爵을 통하여 「類合」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남작이 1832年 러시아 政府의 명령으로 Kiachta 지방으로 여행도중 얻은 것인데 이는 또 北京駐在宣教師 Hyacinth가 韓國使臣들로부터 구입한 것이었다¹⁶⁾. 그러나 Siebold가 入手한 「類合」은 紙質·字體가 매우 不良했던 모양으로 글씨는 Siebold의 中國人 助手 Ko Tsching Dschang(郭成章)이 깨끗이 다시 쓰고 校訂과 獨文翻譯은 Hoffmann이 擔當했던 것이다. 「類合」을 校訂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1832年の 語彙目錄과 그 사이 얻은 *Wei jü lui kiäi* (倭語類解)을 참고하였다¹⁷⁾. 倭語類解의 性格과 이를 통한 우리의 文字 및 音韻一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베풀어져 있다. 「類合」獨譯은 우리 漢字音(Schinesisch), 意味獨譯, 訓(koraisch)의 순서로 提示되어 있다. 〈附錄〉에, 漢字에 우리의 訓과 音을 단 「類合」(류합)이 붙어 있다(SS. 9~18).

Hoffmann(1840)은 Siebold(1833)을 獨譯한 것이다. 본서는 Siebold(1852)의 *Nippon IV* 다음에 挿入된 것(SS. 165~191)을 利用하기로 한다¹⁸⁾. 본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小倉進平, 1964: 22), 千字文訓의 羅馬字化 提示(Vocabulärmässige Uebersetzung ins Kôraische), Medhurst의 英譯(Medhurst's Uebersetzung des Schinesischen Textes), 日本 千字文訓의 羅馬字化 提示, 獨譯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¹⁹⁾. 1833年 「千字文」을 刊行할 당시만 해도 그것은 國語知識을 위한 唯一한 자료였는데 그후 「類合」, 「倭語類解」등을 손에 넣음에 따라 Siebold의 初期의 國語語彙에 대한 知識이 매우 不完全함

16) Siebold의 類合구입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小倉進平(1927)에 依해서도 간단히 소개되었다.

17) 「倭語類解」는 Philosinensis(1835)에서 西歐人에게 주목되었다고 한다(S.62 脚註(1) 참조).

18) 필자는 Bochum大學 東亞學部 中國學圖書館에서 Hoffmann의 1840年の 獨譯本을 본 일이 있다. 小倉進平은 千字文獨譯이 *Nippon VII*에 실려 있다고 한다(1964: 71~72). 그러나 필자가 본 3種의 重版本 가운데서 千字文 獨譯이 실린 것은 1852年版과 1930年版이다. 前者에는 *Nippon IV* 다음에 挿入되어 있고 後者에는 *Nippon VII*에 들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小倉進平은 1930年版을 본 것임에 틀림 없다(註(15) 참조).

19) Hoffmann의 千字文獨譯은 이미 小倉進平(1927)에 紹介된 바 있다.

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Hoffmann은 Philosinensis(1935)을 中心으로 하고 「類合」, 「倭語類解」등을 참조하여 「千字文」의 獨譯을 試圖했던 것이다.

다시 觀點을 바꾸어 Siebold의 *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의 重版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852年版은 Leyden에서 저자 자신에 의해 출판되었다. 2冊, 크기는 둘다 28.5cm×38cm 皮葺洋裝이다. 國語關係資料는 둘째책(Texte II), *Nippon* IV 다음에 Hoffmann(1840)이 挿入되어 있고(SS. 165~191), *Nippon* VII에 “言語와 文字”(Sprache und Schrift)(SS. 10~17), “語彙目錄”(Wörterverzeichnis)(SS. 29~44), 「類合」(Luihō)(SS. 61~86)와 “附錄”(Appendix)(SS. 11~18)이 있다. “附錄”은 VII에 나온 國語資料들의 原資料를 묶어 놓은 것이다.

1897年版은 Würzburg의 Verlag von Leo Woerl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의 아들들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初版本의 不足한 점을 補正하는 뜻으로 1897年版을 낸다고 Siebold의 두 아들은 적고 있다(Vorwort zur zweiten Auflage 참조). Ph. Fr. von Siebold(1796~1866)는 원래 Würzburg 胎生으로서 1896年 그의 百回誕辰을 맞아 長男 A. Fr. von Siebold에 의해 「紀念回想錄」까지 나왔었다(1897年版의 Siebold의 傳記 참조). 1897年版은 2책, 크기는 18cm×25cm 洋裝이다. 첫째책의 Abteilung II. Volk und Staat에 國語의 名詞, 助詞, 代名詞, 數詞를 日本, Mantschu-Tattan 및 Jezo와 比較한 것(Übersicht der Etymologie der Sprachen von.....)(SS. 290~291)과 “해달……” 등 100여개의 國語單語를 中國, 日本 Mandschu(Sandan), Sachalin 및 Jezo, 流球語와 比較한 것(Vergleichende Tafel der Sprachen von.....)(SS. 294~298)이 실려 있다. 이 부분은 1852年版과 1930年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자료는 小倉進平(1964, 1927, 1929)에도 언급된 일이 없다. 1832年版의 文法叙述과 語彙目錄, 그리고 그 이후의 國語關係語彙集整理를 바탕으로 종합한 것을 1897年版에 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²⁰⁾. 둘째책에는 言語와 文字”(Sprache und Schrift)와 “韓國語彙目錄”(koreamisches Wörter-

20)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망된다.

verzeichnis)가 나온다. 그러나 1852年本보다 많이 疎略해진 반면 추가된 것도 있다. 1852年本에 있던 文法部가 없어지고 1852年本의 脚註(11)을 本文에 編入시키되 字母表(Scriptura Cooraina)가 추가되어 있다. “韓國語彙目錄”에 나온 語彙는 70여개, 1852年版의 455개에 比較하면 상당한 量이 줄어저 있다. 이리하여 脚註에서 詳細한 것은 *Nippon VII* 初版을 보라고 주의를 換氣하고 있다. 1852年版에 있었던 日本 漢字音과 日本語 對譯은 省略되었고 우리의 訓과 漢字音이 羅馬字化하여 提示되고 있을 뿐이다. 1852年版에 있었던 한글과 漢字資料 등은 一切 除外되어 있다.

1930年版은 Siebold의 1823~1830年間 日本에서의 活動을 기념하기 위하여 伯林 日本研究所(Japan Institut Berlin)에서 발행한 것이다. 製책은 補充・索引篇인바 F.M. Trautz 박사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다. 製책 共히 크기는 26.5cm×36.5cm 皮革洋裝이다. 1852年版과는 달리 []안에 總面數가 記錄되어 있다. 國語資料는 모두 兩製책 *Nippon VII*에 실려 있다. 原本面數와 總面數를 同時에 提示한다.

- (1) Sprache und Schrift: SS. 10~17 [SS. 1048~1055]
- (2) Koorai Wörterzeichnis: SS. 29~44 [SS. 1067~1082]
- (3) Luihō,...: SS. 61~86 [SS. 1099~1124]
- (4) Das 千字文 Tsiän dsü wen...: SS. 1~27 [SS. 1371~1397]
- (5) 千字文 Tsián dsü wên (1833) [SS. 1400~1422]
- (6) Appendix SS. 1~18 [SS. 1423~1440]

1930年版의 特徵은 1852年版에 빠져 있었던 (5)가 挿入되었고 1852年版의 *Nippon IV* 다음에 挿入되어 있었던 (4)가 *Nippon VII*로 옮겨진 데 있다(前述). 이 版은 Siebold의 國語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包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32년에는 Klaproth와 Siebold의 業績에 이어 또 Gützlaff(1832)가 발표되었다²¹⁾. 이때까지의 國語에 관한 研究業績은 모두 單行本에 挿入・叙述된 것이 고작이었으나 Gützlaff의 업적을 계기로 하여 國語를 전문적으로 고찰한 업적이 學報를 통해 나오게 된다. Charles Gützlaff(1803~1851)는 중국

21) Gützlaff의 글은 종전에 1833년에 발표되었다고 말해 오기도 했으나(小倉進平 1964) 掲載誌 *Chinese Repository*를 자세히 보면 1832년이 분명하다(金敏陔外 1978 [204] 解説 및 이용호 1978 참조).

등지에서 宣敎治勳을 하던 獨逸系의 화란선교사로서 1832年 여름 群山등지에서 聖經을 전파시킨 최초의 新敎宣敎師였다(Paik 1929). 이 글은 *Chinese Repository* I (pp. 176~179)에 발표된 것인데 주로 韓國旅行途中에 見聞한 것을 中心으로 叙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전의 西洋人 이를테면 Remusat (1820)을 보았다든지 西洋人の 語彙蒐集책자를 참고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日本을 거쳐 西洋人の 손에 들어온 우리 책자를 보았다는 귀절이 나오는데(p. 279), 오히려 이런 책들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Morrison(1834)은 *Chinese Repository* Vol. II (pp. 135~139)에 실린 것이다²²⁾. 이 글은 별도로 붙인 한글 字母表(The Corean Syllabary)를 통하여 印歐語의 觀點에서 國語의 子音의 音價를 설명하고 있다.

Philosinensis(1835)²³⁾는 한글 字母表와 羅馬字轉寫이 卷頭法에 마련되어 있고 다음으로 韓英語彙集目錄을 두고 있다. <附錄>으로 「倭語類解」, 「千字文」을 실었는데 漢字에 대해 우리의 音과 日本音을 붙이고 아울러 英譯도 붙이고 있다. 이 책이 발판이 되어 Hoffmann의 千字文 獨譯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²⁴⁾. Morrison(1835)²⁵⁾에는 본서 譯者의 序文이 引用되어 있고 이전에 발표된 Gützlaff(1832)와 Morrison(1834)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본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Xylander(1837)는 國語語彙 25個를 들고 國語의 系統을 追跡한 것이나 (SS. 458~460).

Belcher(1848)에는 約 600의 國語語彙라 蒐集되어 있으나 이는 前述한 Medhurst(1835)에서 뽑은 것이다²⁶⁾

22) Underwood(1931: 26)에는 이 글의 발표연대와 집필자가 1833年과 Gützlaff로 되어 있으나 前者는 1834年의 잘못이다. 後者는 이 글 가운데 “우리는 前號에 Gützlaff의 글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반도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挿入했다”라는 귀절이 있음을 보아 Gützlaff는 아닐 시 분명하다. Rosén (1970: 81)에는 J.K. Morrison으로 나와 있다. 이 글은 필자의 손으로 찍어진 것이 틀림없으므로 Rosen을 따라 Morrison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23) Philosinensis는 宛名이다. 本名은 W.H. Medhurst이다.

24) 필자는 본서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小倉進平(1964: 73; 1929: 61~63)에 依支하였다.

25) 이 글도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前例에 따라 Morrison이라고 했다.

26) 필자는 본서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小倉進平(1929: 293)에 依支하였다.

3.

필자는 1820년부터 1850년 사이에 나온 西洋人들의 國語研究 業績을 대체로 發表年代에 따라 檢討해 보았다. 다루어진 領域은 文字, 音韻, 語彙, 文法, 系統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語彙를 蒐集하여 佛譯, 獨譯, 英譯을 시도한 것이 主流를 形成하고 있었다. 이러한 語彙研究는 우리나라 사람과의 직접적 接觸에 의한 것도 있지만 「鷄林雜事」, 「三國通覽圖說」, 「千字文」, 「倭語類解」, 「類合」과 이전의 西洋人들의 語彙蒐集을 발판으로 行해졌던 것이다. 적극적 活動을 편 사람은 Remusat, Klaproth, Siebold, Gützlaff, Philo-sinensis, Hoffmann이었다. Balbi, Xylander, Belcher 등의 연구는 앞서 든 사람의 업적에 依存하여 敘述한 것이다.

이 時期의 西洋人들의 업적 가운데서 刮目할 만한 것은 Siebold의 研究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업적들은 書誌·文獻上으로 엄혀 있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著述이 版을 거듭할 때마다 不斷한 손질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의 草創期의 저술을 入手하면 解決될 줄 믿는다. Siebold의 語彙蒐集과 그 對譯은 이미 과거에 言及된 바 있었으나 國語文法에 관한 敘述은 필자의 資料檢討를 통해서 確認된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19世紀 前半期の 國語文法研究資料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Gützlaff의 업적 이외에 Siebold의 업적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 이어 19世紀 後半期の 西洋人의 國語研究資料들이 一目瞭然하게 整理되면 19세기의 西洋人의 國語研究의 제반 動向이 體系的으로 史述될 수 있을 것이다.

西洋人の 國語研究 資料目錄(1820~1850)

Rémusat, A.M. (1820), Recherches sur les langues tartares ou Mémoires sur différens points de la grammaire et de la littérature des Mandchous, des Mongols, des Ouigours et des Tibetains, Tome I., Paris: de l'Imprimerie Royale.

Klaproth, H.J. (1823), *Asia Polyglotta, ou Classification des peuples de l'Asie d'après l'affinité de leur langues avec d'ample vocabulaires comparatifs de tous les idiomes asiatiques*, Paris, 2nd Ed.(1831)

Balbi, A. (1826), *Introduction à l'atlas ethnographique du globe, contenant un discours sur l'utilité et l'importance de l'étude des langues... un aperçu sur les moyens graphiques employés, par les différent peuples de la terre*, Paris.

Klaproth, H.J. (1832), *Aperçu de l'origines des diverses écritures de l'ancien monde*, Paris.

_____ (1832), *三國通覽圖說 SAN KOKF TSOU RAN TO SETS, ou Aperçu général des trois royaumes. Traduit de l'original japonais-chinois. Ouvrage accompagné de cinq cartes*, Paris: Printed for the oriental translation fund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h, Fr vou Siebold (1832), *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Leyden.*

_____ (1852). *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 und dessen Neben-und Schützländern: Jeso mit dem südlichen Kurilen, Krafto, Koorai und den Liukiu-Inseln, nach japanischen und europäischen Schriften und eigenen Beobachtungen*, Leyden: Bei dem Verfasser.

_____ (1897), *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 und dessen Neben-und Schützländern Jezo mit den südlichen Kurien, Sachlin, Korea und den Liu-Kiu-Inseln. Herausgegeben von seinen Söhnen. Zweite Auflage*, Würzburg: Verlag Leo Woerl.

_____ (1930), *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 Vollständiger Neudruck der Urausgabe. Zur Erinnerung an Philipp Franz von Siebolds erstes Wirken in Japan 1823~1830, In zwei Text-und zwei Tafelbänden. Dazu ein neuer Ergänzungs-und Indexband von Dr. F. M. Trautz. Herausgegeben vom Japan Institut*

Berlin. Berlin: Verlag Ernst Wasmuth AG.

_____ (1833), Tsián dsü wên, sive mille literae ideographicae, opus sinicum origine cum interpretatione kooraiana, in peninsula Koorai impressum, Lugduni, Batavorum.

_____ (1838), Lui Ho sive vocabularium sinense in koraianum conversum, opus sinicum origine in peninsula korai impressum annexa appendice vocabulorum koraianorum, japonicorum et sinensium comparatica, Lugduni Batavorum.

Hoffmann, J. (1840), Das 千字文 Tsián dsu wen oder Buch von Tausend Wörtern, aus dem schinesischen, mit Berücksichtigung der koraischen und japanischen Übersetzung, ins deutsche Übertragen.

Gützlaff, Ch. (1832),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Chinese Repository Vol, I.

Morrison, J.K. (1834), The Korean Syllabary, Chinese Repository II.

Philosinensis (W.H. Medhurst) (1835),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 which is added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in Chinese and Corean. The whole accompanied by copious indexes, all the Chinese and English words occurring in the work, Batavia, Printed at the Parapattan Press.

Xylander, K.A. (1837), Das Sprachgeschlecht der Titanen, Darstellung der ursprünglichen Verwandtschaft der tatarischen Sprachen der Hellenen, und Andeutung der zu nächst deraus hervorgehenden Folgen für die Geschichte der Sprachen und Völker, Frankfurt am Main: Bei Johann David Sauerländer.

Belcher, E. (1848), Narrative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Vol.2, London.

參 考 文 獻

- 高永根(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言語教育 6-1
 _____ (1978), 國語文法研究一世紀(上), 韓國學報 12(가을).
- 金敏洙, 河東鎬, 高永根(共編) (1978), 歷代韓國文法大系, 塔出版社.
- 이응호 (1977), Hall의 Words Obtained from the Inhabitants of the
 West Coast of Corea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9.
 _____ (1978), Gützlaff가 쓴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의
 연구, 명지어문학 10.
- 小倉進平 (1940), 增訂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 _____ (1964), 增訂補注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 _____ (1927), 歐米人の朝鮮語の研究の資料となつた和漢書, 民族
 3-1 (昭和 2. 11), 小倉進平博士 著作集(四)에 再收錄
- _____ (1929), 西洋人によつて蒐集せられた早い時代の朝鮮語彙,
 朝鮮支那文化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纂一)(昭和 4. 9), 小
 倉進平博士 著作集(二)에 再收錄
- 京都大學文學部國語國文學研究(1975, 昭和 50), 小倉進平博士 著作
 集(二, 四), 京都大學國文學會
- Griffis, W.E. (1882),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Hulbert, H.B. (1901), *Remusat on the Korean Alphabet* ("Recherches
 sur les langues tartares 1820), *Korea Review* Vol. II.
- Morrison, J.K. (1835), 書評: *Philosinensis* (1835), *Chinese Reposi-*
tory Vol. IV.
- Rosén, S. (1970), *A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Stockholm.
- Rosny, L. de (1864),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 VI.
- Scott, J. (1887), *En-moun mal ch'aik,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Underwood, H.H. (1931),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

Vos, F. (1975), Master Eibokken on Korea and the Korean Language: Supplementary Remarks to Hamel's Narrative, Transactions Royal Asiatic Society, Vol. L.